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총회장: 이봉모(바오로) (614-766-1990) 부회장: 최영자(레지나) (614-855-2167)

본당 소식

- ◆ 오늘 주일 미사 후 Parish Center 에서 **사목협의회**가 있습니다. 모든 사목위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 예산안 제출**
 사목평의회 각 위원회 및 본당 내 모든 단체들은 2008년 예산안을 재정위원장에게 1월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 교우금 책정 및 납부 안내**
 -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고, 신앙인으로서 의무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교우금을 납부해 오신 교우들은 계속 참여해 주시고, 아직 교우금 납부에 참여하지 않고 계신 교우들도 2008년부터는 꼭 참여해 주십시오.
 - 교우금 납부에는 어느 교우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 교우금 책정서에 기입하셔서 재정위원장 김 세실리아 자매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복사단 안내**
 - 오늘 예정되었던 복사단 찰고 시험은 신부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연기되었습니다.
 - 제시된 기도과제를 찰고 때까지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해당학생들의 부모님께서서는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월 3일 **주일학교** 개학합니다. 이번 학기부터 새롭게 주일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부모님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 아기예수반 (유치반): 4-6 세
 - 마리아반 (초등부): 1-4 학년
- ◆ **설 합동위령미사** 안내
 - 일시: 2월 3일 주일미사
 - 조상들을 위한 설 합동위령미사 예물을 각 가정 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재의 수요일** 예식 안내
 - 2월 10일 주일미사 중 재의 예식이 거행됩니다.
- ◆ **김제준 구역 모임**
 - 일시: 2월 2일 토요일 저녁 7:30
 - 장소: 구역장 댁
8576 Copperview Dr.
Dublin, OH 43016
- ◆ **주일학교 자모회 봉사자**
 - 2월 3일: 조숙경 손보영
- ◆ **친교 봉사자**
 - 1월 27일: 최영찬
 - 2월 3일: 성모회 (설 다과회)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523.00
교 무 금	
성전건립기금	
감 사 헌 금	

• 교 무 금: 한석철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기도하고 일하라

연중 제3주일 January 27, 2008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르심>

가브리엘 로와, 유리화, 20세기, 레베, 프랑스

“예수께서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셨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이사야서 8,23-9,3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로다.



제 2 독서 코린토 1서 1,10-13,17
 “모두 합심하여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도다.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4,12-23
 “예수께서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셨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공동체를 위한 목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1,120단 9명	
이호영	100단 1명 6,510단 52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240단 3명 3,765단 39명	
김효임	단 명 1046단 27명	
유대철	단 명 단 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단 명 2/22/04 - 1/20/07 (204주)	

♣ 총누계: 192,325단 12,612명
 목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1월 27일	2월 3일
해설자	김오경	고상식
독서/봉헌	이호영 구역	황석두 구역
보편지향 기도	상지의 옥좌	평화의 모후

오늘의 성가

♫ 입당: 402 ♫ 봉헌: 210
 ♫ 성체: 32 179 ♫ 파견: 461

주님은 나의 빛

고준석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 서울대학교

예로부터 빛과 어둠은 대조를 이루어왔다. 빛은 낮을, 어둠은 밤을, 빛은 밝음과 뽀뽀함을, 어둠은 음침함과 부끄러움을 나타내곤 했다. 그래서 흔히 빛은 하나의 희망이요 구원을 상징하고, 어둠은 악이요 죽음으로 인식하곤 하였다. 실제로도 우리는 캄캄한 밤에는 왠지 모를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낀다. 우리가 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제 날은 어두워지고 춥다. 이럴 때 가장 간절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길을 밝혀 주는 등불일 것이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활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들을 비추시는 ‘큰 빛’으로 묘사하고 있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빛’이라는 상징적 개념을 통하여 이사야가 예언한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실현되었음을 말한다. “즈불론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만족들의 갈릴래아,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마태 4,14).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로서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 즉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빛이신 것이다.

이러한 빛을 본 사람들이 있다. 그냥 빛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을 바꿔 줄 커다란 빛이다.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나를 따라오너라”(마태 4,19)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의 생계수단인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라나선다.

과연 어떠한 분이시기에 인생을 바꿔 줄 커다란 빛이신가?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집안에서 마구간이라는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다. 어른이 되어 집을 떠나 여행을 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의 벗이 되어 주셨다. 앓은뱅이를 고쳐 주시고 소경에게 밝은 빛을, 귀머거리에게는 아름다운 소리를 선사하며,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셨다. 또한 어둠 속에 흐느끼고 있는 죄인들을 찾아가시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벗이 되어 주셨다. 더욱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이러한 분이기에, 가장 자비롭고 사랑이 넘친 분이시기에,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아니 망설임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지금의 삶보다 더욱 가치 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렇듯이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범이시고 진리를 비추는 커다란 빛이시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빛을 보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인생의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따르는 것이요,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여정을 함께 밝아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과의 결별이며, 더 나아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결별이기도 하다. 이것은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 자신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한다.